



# 외대학보

976호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2 독서의 계절, 우리학교 독서왕은?

3 양 배움터 정기총회

5 한글 맞춤법,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요?

8 우리나라 1호 큐 인스트럭터



## 풍성한 가을밤을 수놓은 음악회의 선율

이달 14일 우리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음악회가 서울배움터 오바마홀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장일범(노어 87) 음악평론가가 총감독과 사회를 맡고, 정치웅(한군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 음악원 교수)가 지휘를 했다. 우리학교와 한예중 관현악단이 연주했으며 소프라노 서활란과 테너 류정필이 출연했다. 또한 동문 음악인 김도은(영어교육 08), 이승훈(무역 84), 이정열(아프리카 87)과 외대합창단이 참여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 8년 만에 다시 모인 대학노조

### 조합원 총회 열고 천막 농성 시작



▲ 전국 각지에서 온 200여 명의 대학노동조합원들이 서울배움터 본관 앞에 모여 투쟁을 외치고 있다.

10월 7일 서울배움터 본관 앞 미네르바광장에서 우리학교 노조 조합원 총회 및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는 2006년 노조 총파업 전에 있었던 조합원 총회 이후 8년 만이다. 이 자리에는 신승철 지부장 외 200여명의 우리학교 노동조합(이하 노조) 조합원, 주영재 위원장 외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전국대학노조) 조합원,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가 시작하기 전 2012년 고인이 된 고(故) 이호일 전 한국외대 지부장과 고(故) 이기연 전 한국외대 수석부지부장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주영재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총회는 신승철 지부장의 투쟁사로 이어졌다. 이후 투쟁 결의문 낭독에서 신 지부장은 “학교 당국이 정상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비리 척결을 통해 건전한 학교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전임 총장 부정비리 규탄 △전임 총장 교비횡령액 즉각 환수를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이번 총회 및 결의 대회는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개최됐다. 노조 측은 학교가 박철 전 총장 고발의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다며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7월 2일 노조 측은 박철 전 총장이 2006년 파업 당시 노무법인 '창조'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컨설팅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을 위반해 교육과는 무관한 일에 교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박철 전 총장 고발 사건이 단체협약에 대한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영복 서울배움터 행정지원처장은 “고소 건의 경우, 2006년 당시 벌어지고 있었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에서 총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며 “총장 개인이 쓴 돈이 아니라 재단의 위임과 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업무 활동의 일환으로 교비를 집행했기에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이를 법령 위반이 아닌 2006년 파업의 부작용 중 하나로 보고 학교와 노조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만들어지는 화해와 상생 위원회에서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을 뿐”이라며 “전 총장 고소의 원만한 해결은 단체협약에 들어갈 수도 없는 내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 우리학교 중앙일보 대학평가서 6년 연속 국제화 1위

우리학교가 지난 일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국제화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종합 순위는 지난 해보다 하락한 19위에 머물렀다. 2013년 우리학교의 종합 순위는 17위였다.

△전임 이상의 외국인 교수 비율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영어강좌 비율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등으로 평가하는 국제화 부문에서 우리학교는 이번 해에도 1위에 오르며 2009년부터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게 됐다.

하지만 이외 부문에서 순위는 소폭 하락하거나 29위 밖에 위치해 아쉬움을 남겼다. 국제화 부문 외에 △재정 및 교육 여건은 29위 내에 들지 못했고, △평판 · 사회진출도는 지난 해보다 5계단 내려온 19위, △교수연구 분야는 지난 해 기록했던 28위보다 한 계단 하락한 29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교수연구 분야나 재정 및 교육 여건의 경우 병원을 운영하거나 이공계가 주가 되

는 대학이 유리해 외국어로 특성화된 우리학교에게 불리한 분야다.

홍순혁 평가감사팀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지표로만 평가하기에 우리학교의 특성화나 그에 따른 노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순위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런 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일보 측에 요구하고,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통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뒤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국제화 부문도 앞으로 계속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며 끊임없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팀장은 이어 “학생들도 내부에서는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외부에서는 애교심을 가지고 우리학교를 홍보해주면 학교 평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 외대학보 제3회 학술대전

- ▶ 응모 자격 : 우리학교 학부생 누구나(휴학생 포함)
- ▶ 공모 기간 : 9월 23일(화)부터 ~ 10월 31일(금)까지
- ▶ 주제 : 자유 (모집 분야에서 택)
- ▶ 모집 분야 :
  - 중 · 단편 소설: A4용지 15매 이상
  - 논문: A4용지 20매 내외
- ▶ 수상작 발표 : 2014년 2학기 중 개별 연락 및 외대학보 지면
- ▶ 응모 방법 :
  - 이메일 : hufspress@hanmail.net
  -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학생회관 401호 외대학보사 130-791
- ▶ 문의 사항 : 02-2173-2504

- ▶ 상금 :
  - 1등 50만원 및 상장
  - 2등 30만원 및 상장
  - 3등 20만원 및 상장
- ▶ 유의사항 :
  - 논문은 팀 제출 가능.
  - 출품된 작품이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분야별 우수작끼리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경우, 분야별 시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수상 이후 표절로 판명됐을 경우 수상 및 상금이 취소되며, 법적 책임은 표절 당사자에게 있음.
  - 공모전 일정은 학보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심사기준 : 본지 957호 12면 '외대학보 제3회 학술대전 심사 총평' 참조

학내 브리핑

# 내가 바로 우리학교 독서왕! 양 배움터 정독상 · 다독상 시상

##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나눔의 집에 플리마켓 수익금 기부해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14일 내유외강 플리마켓을 통해 얻은 수익금 136만 8750원을 전액 나눔의 집에 기부했다. 이 수익금은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 본관 앞에서 학생들이 기증한 물건과 위안부 팔찌를 판매한 수익금과 플리마켓 후 팔리지 않은 책들을 헌책방에 판매한 수익금이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10월 7일 열린 하반기 전체 학생 총회의 안건 자료집을 통해 아끼던 물건을 기증해준 학생들과 물건을 구매해준 282명의 학우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 휴학 중 해외교류 프로그램 학점인정을 위한 등록금 납부안내

휴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 계절학기 학점 인정을 위한 등록금 납부가 10월 31일까지다. 휴학 중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본교 복학해야 한다. 본교 납부액은 1학점 당 168,000원이며 학교 계좌인 우리은행 1005-002-214393으로 입금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ia.hufs.ac.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홈페이지 유지 보수게시판 신설

이번 달부터 홈페이지 수정 요청 방식이 바뀐다. 기존의 홈페이지 수정은 전자결재나 공지사항 메일, 홈페이지 메일, 개인 메일 등으로 분산돼 있었으나 이번에 '홈페이지 유지보수게시판'을 신설해 홈페이지 수정방식을 통합했다. 게시판 이용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해당부서 관리자 ID로 로그인 후 '대학생활' 내 '민원센터의 '홈페이지 관리 및 개설현황'에서 '유지보수 신청'을 누르고 해당부서 카테고리에 글을 쓰면 된다. 요청 후 작업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양 배움터 도서관장들이 학생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 왼쪽은 서울배움터, 오른쪽은 글로벌배움터 다독상 시상식 사진이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정독상 · 다독상 시상식이 열렸다. 9월 23일 서울배움터 도서관장실에서 열린 다독상 시상식에서는 한 학기동안 책을 가장 많이 대출한 이선근(서양어 · 프랑스어 10) 군이 1등의 영예를 안았다. 그 뒤를 이어 △김채민(교육대학원 · 한교 14) 군 △김용훈(일본 · 일본 07) 군 △류철민(상경 · 국통 10) 군 △김평(일반대학원 · 문화콘텐츠 14) 군 △김수정(사회 · 미디어 12) 양 △이혜원(중국 · 중국 11) 양 △정다솜(사회 · 미디어 10) 양이 2등에 선정됐다.

1등에게는 상장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수여했으며 2등에게는 상장과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전해졌다. 1등을 수상한 이선근 군은 "지난 방학 때 목표를 '책 많이 읽기'로 정해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들을 빌려봤는데 예기치

않게 다독상을 받아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난 2일, 서울배움터에서는 정독상 시상식도 있었다. 이번 제 10회 정독상은 <소년이 온다>의 3편의 추천도서로 대한 독서감상문을 모집했다. 최우수상은 이준환(상경 · 경제 09) 군, 우수상은 △최지영(사회 · 정의 09) 양 △이가은(서양어 · 프랑스어 10) 양 △이호진(사회 · 정의 14) 군, 장려상은 △김태준(경영 · 경영 06) 군 △문준원(동양어 · 베트남어 09) 군 △임채운(동양어 · 몽골어 11) 양 △손소담(서양어 · 스페인어 12) 양이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30만원의 부상이,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부상이 상장과 함께 전해졌다. 차종상 서울배움터 학술정보팀장은 "정독상 상금을 더 올려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서

울배움터에 열정적인 독서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배움터에서는 다독상 시상식만 열렸다. 9월 30일 글로벌배움터 도서관장실에서 열린 다독상 시상식에는 수상자들과 함께 이은구 글로벌배움터 도서관장, 김상현 글로벌배움터 학술정보팀장, 신미숙 사서가 참관했다. 다독상 수상자는 1등 정유경(통번역 · 일본어 11) 양과 2등 △윤혜성(자연 · 생명공학 07) 군 △정주만(동유럽 · 폴란드어 10) 군 △남승연(자연 · 전자물리 14) 양 △이지연(국제지역 · 러시아 11) 양 △이광용(경상 · 국제경영 11) 군 △윤현기(동유럽 · 폴란드어 10) 군 △서해림(인문 · 언어인지 11) 양으로 모두 8명이다.

서울배움터와 마찬가지로 1등에게는 상장과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등에게는 상장과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상품으로 주어졌다. 1등을 수상한 정유경 양은 "졸업 전 학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독서를 했다"며 "생각도 못했는데 상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쁘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은구 글로벌배움터 도서관장은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이 깊어져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며 "다독으로 우리학교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외대인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 한글 창제 568돌 및 한국어교육과 창설 40주년 기념 행사 열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우리학교 한국어교육과(이하 한교과) 창설 40주년 기념행사가 대학원 브릭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글 창제 568돌을 함께 기념하며 개최됐다.

첫째 날인 7일에는 한교과 임경순 학과장의 사회로 학장과 동문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뒤이어 한교과 학생들의 축하공연과 함께 송기중 명예교수의 훈민정음 해례의 음소 · 음성학 특강이 열렸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은 한국어 골든벨 한국인부 행사로 마무리됐다.

5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한국어 골든벨에는 O.X 퀴즈와 객관식, 주관식 문제가 출제됐다. 우승자인 안종수(서양어 · 스페인어 11) 군은 "얼마 전 한국어능력시험 때문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이 도움이 돼 이번 골든벨 행사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한글날을 맞아 이런 행사

가 매우 뜻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8일에는 한국어 골든벨 외국인부 행사가 열렸고, 학회발표 및 문특강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한글 교육 △한글의 멋과 아름다움 △문학을 통한 치유, 문학치료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방송 매체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로 학회 발표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한교과 동문회의 진행과 함께 한교인의 밤으로 마무리됐다.

여인영(사범 · 한국어교육 12) 한교과 학생회장은 "이번 행사가 한국어 학습자들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한글과 한국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공적으로 진행 및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행사 소감을 전했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 동연 2학기 자치회비 배분 없어

이번 학기 서울배움터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자치회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9월 29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의결하고 2학기 자치회비 비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는 학생들이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자치회비 11000원에서 교지대 2700원을 제외한 금액 중 총학생회 44%, 단과대학 43%, 학생복지위원회 4%,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치러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동아리연합회에 7.5% 배분하기로 했던 9월 15일 전학대회 의결안을 뒤집은 내용이다.

전학대회에 이번 안을 상정했던 김범(국제 11)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가 들어선 이후 9차례 열렸던 전학대회에서 동연이 전체 불참이 잦았다"며 "전학대회의 의장으로서, 성원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세원(동양어 · 인도어

10) 동연 회장은 이에 대해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동아리들에게 죄송하다"며 "잘못에 대한 제재는 받아야겠지만 이번 조치는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학생회칙에는 전학대회에 결석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과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 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회칙이 존재하지 않았다. 김범 총학생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총학생회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자치회비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재의결을 통해 환수되는 자치회비는 11000원에서 교지대를 제외한 금액 중 9%에 해당하는 액수다. 9월 29일에 이러한 내용이 결정됨에 따라 9%에서 7.5%로 배분 비율을 줄이는 조건이었던 전동대회에서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9%의 금액은 전학대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총학생회가 3%, 단과대학이 5%, 학생복지위원회가 1%씩 배분받는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 2015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야간) 신입생 모집요강

http://gse.hufs.ac.kr/	석사학위과정
> 입학문의 : 대학원교학처 사무2팀 교육대학원 TEL 02)2173-2419~2421 FAX 02)2173-3358 >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1. 전형 일정

구분	기간	장소	비고
입학지원서 인터넷 작성	2014. 10. 27(월) 14:00 ~ 10. 31(금) 22:00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uwayapply.com	교부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해당일 24시간 작성 가능
작성 서류 제출	2014. 10. 27(월) 14:00 ~ 10. 31(금) 22:00	교육대학원 교학처 (대학원건물 111호)	우편 제출의 경우 10. 31(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면접 고사	2014. 11. 15(토)	전공별 면접고사장 (대학원건물)	전공별 면접시간: 11.14(금) 14:00,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인사뉴스 공지(예정)
합격자 발표	2014. 12. 04(목) 14:00 예정	gse.hufs.ac.kr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 등록	2014. 12. 08(월)~12. 12(금) 예정	우리은행 전국 지점	은행 영업시간 내 (인터넷뱅킹, 폰뱅킹 가능)

\* 제출서류 접수시간 : 교육대학원 교학처 업무시간 내 14:30~21:30 (토, 일, 공휴일 휴무)  
\* 지원자 전원 면접고사에 응시하여야 함.

제출서류 보낼 곳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사무2팀 교육대학원 입학담당
-----------	--------------------------------------------------------

### 2. 모집 전공 및 인원

모집 과정	모집 전공	모집인원
교육학석사	• 국어교육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 영어교육 · 어린이영어교육 • 스페인어교육 · 일본어교육 · 중국어교육 • 수학교육 · 역사교육 · 일반사회교육 · 컴퓨터교육 • 교육경영과 리더십 · 상담심리 · 유아교육 · 다문화교육	000명

#### \* 전공별 유의사항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어린이영어교육, 교육경영과 리더십, 다문화교육 4개 전공에서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지원자 대상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해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과목학점 및 필수시간을 이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다. 다문화교육 전공 지원자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2 제2항 제2호」에 의해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면 수료증(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발급이 가능함.

# 7일 양 배움터 정기총회, 성사 여부는 엇갈려



▲글로벌배움터 학생들이 늦어지는 학생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서울배움터 정기총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

지난 7일 서울배움터 잔디광장에서 열렸던 하반기 전체 학생 총회(이하 정총)가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정총은 전체 재학생 중 10% 이상이 참석해야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개회 예정이었던 오후 6시를 훌쩍 넘기도록 전체 재학생 8041명의 10%인 805명이 채워지지 않아 무

산이 선언됐다. 정총이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상정됐던 안건들을 결의하는 대신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약 3시간 여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던 논의 및 결의안건은 크게 네가지로, △제2도서관 예산 확보를 위한 이사회 규탄 및 성명서 채택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안 제정 △성적평가방식변경(안) 결의안 채택 △단과대학(이하 단대) 학생총회 결의

안 연서명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성적평가방식 변경에 관한 논의에는 재수강자 성적을 A0로 제한과 절대평가 기준 인원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인 새로운 성적평가방식안과 졸업 인증제, 졸업 유예 제도, 중앙일보 대외평가 거부운동에 대한 논의도 포함됐다.

김범(국제 11) 총학생회장은 “개회는 하지 못했으나 7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대표자들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꾸준히 참여해준다면 총학생회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10월 27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 ◆글로벌배움터 정기총회는 성사... 다양한 안건 의결돼

이번 달 7일, 글로벌배움터 하반기 정기 학생총회(이하 정총)가 열렸다. 정총은 지금까지 매년 노천극장에서 열려왔지만, 이번 정총은 백년관 컨퍼런스홀에서 치러져 학생들이 실내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었다. 오후 6시 30분 시작 예정이었던 정총을 한 시간 가량 늦춘 끝에 글로벌배움터 재학생 7321명 중 773명이 참석해 성사됐다.

첫 번째 논의 및 의결안건으로 우리학교 설립자 고(故) 김홍배 박사의 동상 철거 요구안이 상정됐

다. 지난 8월 1일 설립자 동상이 글로벌배움터에 설치되자 글로벌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긴급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운동을 벌였지만 아직 동상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다. 비대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상 철거 요구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10월 7일 기준 1200여명이 이에 동참했다. 조국인(국제지역·프랑스 09) 비대위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은 서명을 바탕으로 동상 철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 안건은 기권 2명, 77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10대 교육환경 개선안 검토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안에는 어학을 겸비한 이공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L&E(Language&Engineering)학부 개설, 해외 자비 유학 시 등록금 납부를 철회하고 인정 학점수를 증대하는 안, 건물 및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안건은 백년관 사용 규칙 제정 시 학생의 의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안과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총회에 참여한 김영재(통번역·이탈리아어 14)군은 이번 정총에 대해 “홍보가 미흡해 다른 때보다 학생들이 적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또 박성희(국제지역·브라질 14)양은 “예정보다 늦게 시작됐는데 진행상황을 말해주지 않아 서명만 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너무 늦은 시작이 통학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유다송 기자 89baquibullae@hufs.ac.kr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 학생과 총장의 소통의 장 서울배움터, 총장과의 대화 열려



지난 10일 서울배움터 지하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총장과의 대화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약 70여명의 학생들과 김인철 총장, 김성수 기획조정처장, 문명재 서울배움터 교무처장, 유기환 입학처장, 박영복 서울배움터 행정지원처장 등 각 부처의 처장들이 참석했고, 김시홍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약 10분간 총장이 대표질문에 답변했다. 대표질문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제2도서관, 제2기숙사 등에 관련된 안을 포함했다. 김인철 총장은 “제2도서관 건립은 학생들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외대앞에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뒤이어 참석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에 총장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광역화에 따른 발전상과 폐해 △외대 병원 공약 △지하운동공간 개방 △주점 허용 △자치공간 개방 △동상 설립 논란 △노조와의 갈등 △성적평가 지침 변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7에 달하는 질

문을 던졌다.

학교 측은 특히 “다음 학기부터 성적평가지침 변경은 확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학생들이 원하는 지하 운동 공간 개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외에도 △동상 설립에 대한 총장의 입장 △대학 평가에 대한 계획 △광역화운영위원회 조직 등에 관련한 답변도 들을 수 있었다. 애초 자유질의응답시간은 약 6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더 많은 질의응답을 위해 약 2시간 30분 진행 후 끝마쳤다.

김인철 총장은 “이번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해 학생과 학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서울배움터 김범(국제 11) 총학생회장도 “학생들이 학교의 입장과 학교의 발전상,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 ‘뜨거웠던’ 흡스리그(HUFS League)

이번 달 6일 글로벌배움터 흡스리그(HUFS League)의 단체전이 백년관 앞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렸다. 흡스리그는 9월 11일부터 축구, 야구, 축구, 농구 예선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번 달 2일에는 축구, 농구, 축구의 결승전을 치렀으며 6일에는 야구의 결승전과 함께 단체전이 열렸다. 단체전은 이색줄다리기, 낫다리밟기, 이어달리기로 구성됐다.

흡스리그의 마지막을 장식한 단체전은 단과대학별 경기와 학과별 경기로 나뉘었다. 단과대학별로 팀을 이뤄 진행된 이색줄다리기는 먼저 여학생들만 줄을 잡고 경기를 시작한 후 7초가 지나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면 뒤에서 기다리던 남학생들이 달려와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박원일(국제지역·프랑스 11) 글로벌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집행위원장은 “새로운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해 학생들에게 더 큰 재미를 주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낫다리밟기와 이어달리기는 학과별로 팀을 이뤄 진행했다. 낫다리밟기는 전체 학과를 3조로 나눠 토너먼트식으로 치러졌다. 또 마지막에 있었던 이어달리기는 학과마다 신입생 남·여 각각 한 명과 학과회장, 재학생 총 네 명이 참가했다.

이 날 계주를 맡았던 이정미(통번역·스페인 13) 양은 “작년에 신입생 대표로 계주에 참했는데 이번 해에도 재학생 대표로 계주에 출전하게 됐다”

며 “열심히 땀 테니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흡스리그에 처음 참여한 최진영(공과·산업경영 14) 군은 “시간표에 쫓기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며 “학과 친구들과 경기를 하며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대해 박 위원장은 “학생들이 잘 협조했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학생들은 이번 체육대회에서 ‘경기관람시설 미흡을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백년관 외벽은 대부분 유리로 돼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은 햇빛이 비치면 반사된 빛까지 더해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많은 열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마땅한 경기관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단체전 내내 학생들이 심한 더위 속에서 관람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장 곳곳에서 빛을 가리기 위해 우산이나 응원용 깃발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 진행자 마이크 소리가 작아 공지사항이나 경기 진행상황이 들리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양은 “경기장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불편하고 어수선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백년관 시설이 다른 곳보다 좋은 건 사실이지만 편의를 위해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 용인 영어마을 부지 앞 바리케이트 철거 앞으로의 사용 계획은 논의 중



▲철거 전 정문부터 기숙사까지 세워져 있던 바리케이트의 모습이다.

지난 달 25일 글로벌배움터 정문부터 기숙사까지 세워져 있던 바리케이트와 공사를 위해 설치했던 가건물이 철거됐다. 그 뒤에 위치한 땅은 용인시와 우리학교가 협력해 2007년부터 추진해오던 영어마을이 조성될 부지였다. 하지만 용인시청의 재정난으로 영어마을이 백지화되며 지금까지 철거 바리케이트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전 용인 영어마을 부지의 면적은 6만 456㎡, 연면적은 2만 1,079㎡, 수용인원은 약 400명이다. 우리학교가 부지를 제공하고 용인시가 440억 원을 투입해 2012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용인 영어마을을 교육시설, 기숙사, 생활시설, 문화 스포츠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 시작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서정석 용인시장 후보의 공약이었다. 이 시기 경기도 내 영어마을의 유행을 타고 시장으로 출마한 후보자

들은 너도나도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됐으나 지자체 영어마을이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사례가 드러나며 반대 운동과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2008년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사업에 ‘사업종료조치’를 내렸다. 이후 2010년 용인시가 영어마을 사업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협약 해지문을 우리학교에 최종 통보하며 완전히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용인시는 시공사였던 코오롱 측으로부터 사업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2012년 8월 결국 패소해 25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그 후 코오롱은 이익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이를 취하해 2012년 12월 모든 재판이 끝났다.

송주환 글로벌배움터 기획건설팀장은 “코오롱과 용인시 사이의 갈등 때문에 영어마을에 대한 조치가 늦어졌다”며 “바리케이트가 노후해 넘어질 우려가 있고 외관상 좋지 않아 철거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아직은 계획이 없으나 건물을 짓거나 운동공간을 만드는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잘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외대인이 만난 세계

# 우산혁명을 통해 본 '민주주의 중국'의 시작

이번 여름 중국 북경대에 학점 교류 연구 프로그램을 다녀왔다. 보통 수업 첫 번째 주에는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한 학생이 자신을 상강련(香港人), 즉 홍콩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나를 비롯해 같은 교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다소 의아해했다. '홍콩은 중국이 아니었는가?'라는 의문이 든 것이다.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에 돌아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인가 싶어 인터넷을 찾아봤다. 홍콩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가 맞았다. 명칭에서도 보듯이 홍콩은 엄연히 중국의 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홍콩이라는 한 국가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공존시키는 일국양제 체제로 통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홍콩 사람들은 자신을 중국 사람과는 다른 국가의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크게 놀랐다. 다음날 그 친구에게 왜 중국인이 아닌 '상강련'이라고 소개했냐고 묻자 자신의 친구들은 물론 홍콩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신은 '상강련'이라고 믿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중국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홍콩을 단지 중국에 있는 하나의 도시로 생각한다. 한번은 중국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중국과 홍콩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했더니, 홍콩은 중국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하나 중국사람과 '홍콩 사람'이 생각하는 홍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요즘 홍콩에서 발생한 우산혁명이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홍콩의 보편적 민주선거 요구 시위가 중국의 체제유지와 상충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 갈등은 여러 원인이 있었으나 중국에서 겪었던 경험에 비추면 '홍콩사람'들과 중국사람들이 가지는 이질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홍콩은 중국 본토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와 자유를 누려와 '홍콩'은 중국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그렇기에 홍콩 사람들이 '친 중국' 행정장관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달가워할 리 없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이 시위대의 주장대로 홍콩 행정장관의 자유선거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홍콩을 정당하게 통치하려는 명분을 확보하려면 '홍콩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과 다른 국가의 사람이 아니라는 동질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완전히 상반된 체제 안에서 동질성을 갖기란 사실상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 이번 사태의 본질도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홍콩시민들과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중국정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변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의 장래를 봤을 때 중국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라는 동질성을 가진다면 이러한 홍콩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바로 당장은 어려울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었는가? 변화되는 중국을 기대해 본다.

양창섭(사회·행정 11)

지구촌을 읽다-⑧

# 가자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극단적 상징



서정민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50일에 걸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Gaza)지역 공세가 끝났다. 2,14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 중 70%는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이다. 정확히 말하면 469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반면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과 교전으로 사망한 이스라엘 측 인명피해는 70명이다. 이 중 민간인은 6명으로 10%도 되지 않는다. 이번 가자 사태를 '전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스라엘의 일방적 공세로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사태'다. 이러한 민간인 학살이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휴전이 되고 평화가 찾아온다고 해도 반감을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 공격의 발단은?

이번 사태의 발단은 청소년 납치 살해였다. 이스라엘 10대 청소년 3명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납치 살해된 것이 보복의 시작이었다. 팔레스타인 소년 한 명도 유대인들에 의해 납치돼 산 채로 불에 탔다.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로켓포를 발사하고,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이 무차별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지상군도 투입돼 근거지에서 민간시설이 포격했다. 이스라엘은 민간시설 공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등 무장 세력이 민간 시설에 거점을 설치하고, 이를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격의 명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 청소년 납치 살해는 가자지구가 아닌 예루살렘 서쪽의 요르단강 서안지역에서 발생했다.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역은 이스라엘 영토에 의해 분리돼 있다. 납치 살해범이 누구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유대인 3명의 죽음에 하마스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 3명의 죽음을 이용해 감정적으로 국내외에서 가자를 공격할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작전을 놓고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라는 분석이 힘

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팔레스타인의 두 정치 세력인 파타(Fatah)와 하마스가 통합정부를 구성한다고 합의한 것이 그 배경이다. 6개월 내 총선을 통해 정부가 구성될 예정이었다. 이스라엘은 이를 막고자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두 세력으로 분열돼 있다는 구실로 평화협상을 거부해 왔다. 국제사회도 팔레스타인 협상 주체가 단일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통합정부가 구성되면 이스라엘로서도 평화협상을 거부하기 어려워진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단체 시위 장면

### 세계 최대 '수용소' 가자지구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명분은 테러세력을 소탕하고, 이들의 로켓 발사시설 및 땅굴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가자지구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하마스는 2006년 이후 자살폭탄테러 행위를 멈춘 상태다. 2006년 1월 총선에서 승리해 팔레스타인의 집권세력으로 부상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무장단체에서 정치세력으로 변신에 성공했다.

가자지구에서 무장 정파 하마스와 주민들이 땅굴을 파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무장 투쟁을 위한 무기를 반입하고 이스라엘 본토를 진입 공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생필품 조달을 위해서다. 이스라엘은 2004년 가자지구에서 유대인 정착촌 주민과 지상군을 철수했다. 철수하는 유대인에게는 가족당 최대 3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봉쇄했다. 14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갇혀 지내는 생활을 했다.

육로, 항공로, 그리고 해상 출입을 완전히 통제했다. 생필품, 의료품, 교과서 등의 반입도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반입될 수 있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 및 여행의 권리도 제한했다. 철저히 봉쇄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정치세력과 주민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투쟁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 항구적 휴전 혹은 평화를 위해서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거의 매년 있어왔다. 휴전이 돼도 반복적으로 인도적 재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가자사태에서도 4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불끄기' 방식의 처방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팔간 갈등의 근원은 영토문제다. 유럽 식민주의를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

착한 유대인들과 원주민 팔레스타인인들 간의 충돌이다. 하지만 양측 간 갈등은 세월이 지나면서 복잡하게 얽혀갔다.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랍 영토에 등지를 틀면서 아랍 민족주의를 자극했다.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에서 보이듯이 주변 아랍국은 팔레스타인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및 아랍 간의 반감은 더욱 극에 치닫게 됐다. 또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고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미국도 '아랍의 적'으로 서서히 변모하게 됐다. 이스라엘의 건국이 없었더라면 현재와 같은 반미감정이 중동에 없었을 수도 있다.

영토분쟁의 차원에서 이-팔분쟁의 해결안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예루살렘 관할권, 난민 처리, 수자원 분배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이-팔분쟁은 '모범 답안'이 나와 있는 갈등이다. 1967년과 1973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242호와 338호를 이행하는 것이다. 두 결의안의 골자는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철수하라는 것이다.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는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점령지에서 계속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현재 상황을 영구화하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며 두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피하려 하고 있다. 다만 유혈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양측이 자제하고 휴전하라는 '땀 질식' 처방만 촉구할 뿐이다.

국내의 언론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의 충돌을 전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 아니다.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은 현재 국가가 아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실질적 점령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이다.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어린이와 여성 희생자가 발생했다면 공격이 즉각 중단됐어야 한다.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이와 여성이 지난 60년 간 희생돼 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김천에너지서비스**

---

**대표이사**  
**이승률**  
(무역77)

---

경북 김천시 공단4길 118-10 (응명동)  
Tel. (054)420-1400 Fax. (054)420-1499

**대상에스티(주)**

---

**대표이사**  
**엄상용**  
(태국어81)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3-3  
Tel. (02)2631-4474 Fax. (02)2631-4476

## 새로운 외대학보

# 이제 당신의 손으로 만드세요!

---

### 외대학보사 90기 수습기자 2차 모집

모집기간 : ~11월 14일(금)  
 모집대상 : 양 배움터 4학기 활동이 가능한 학생  
 지원서 마감일 : 11월 14일(금)  
 필기시험 및 면접일 : 11월 15일(토)  
 합격자 발표일 : 11월 16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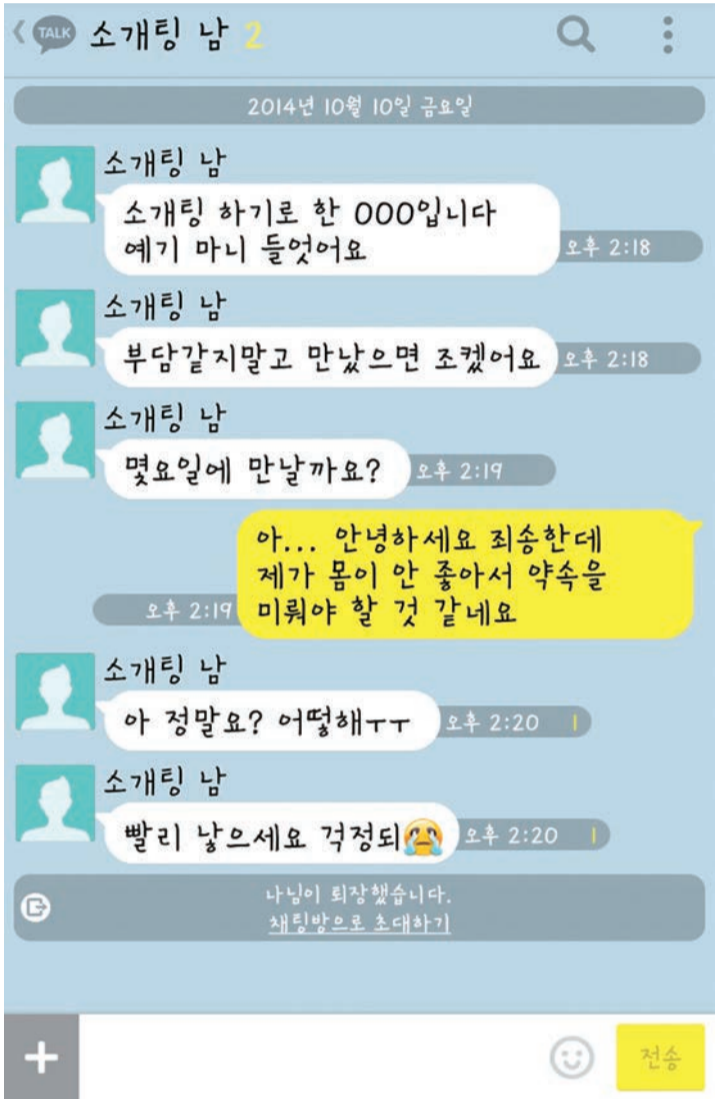
**지원서 수령 및 제출**

- ▶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401호 02-2173-2504
- ▶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 212호 031-330-3112

문의사항 연락처 : 임수진 편집장(010-4257-9732)

# “나랏말싸미 등꺾에 달아” 568 돌 맞은 한글 맞춤법, 맞게 사용하세요?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 한글 창제가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을 보다보면 ‘틀리기 쉬운 맞춤법’이란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한글을 우리가 어렵게 배웠던 때부터 배우지만 맞춤법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태도다. 주변 이들을 보면 심각한 언어파괴와, 신조어와 함께 맞춤법을 틀리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생활에서 한글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한글날을 맞아 본지에서 알아봤다.



## ◆ 맞춤법 틀리면 소개팅에서도 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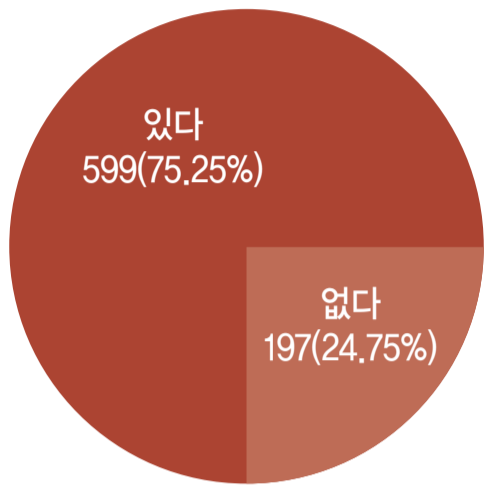
최근에는 소개팅 전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 직접 약속장소를 잡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남녀에 상관없이 위 대화를 본다면 소개팅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 달 7일부터 9일까지 본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우리학교 재학생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대방과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를 나눌 때 맞춤법이 중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794명 중 494명으로 과반수를 넘는 62.22%에 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학교 여학생 박모양은 “메신저 대화를 하는데 ‘회에 소주’를 ‘회의 소주’라고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그 이후로 그 사람과는 연락을 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 ◆ 지나친 언어파괴, 문제가 되는 이유

IT문화와 인터넷의 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등장과 함께 우리말 파괴현상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언어와 비속어 사용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20~30대층의 인터넷 신조어도 심각할 정도로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다. ‘심쿵’(깜짝 놀라다)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 ‘웃프다’(웃기다와 슬프다를 합친 말) ‘노잼’(재미없다) 등의 신조어는 거의 일상어가 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상 대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말들이다. 이런 신조어들은 인터넷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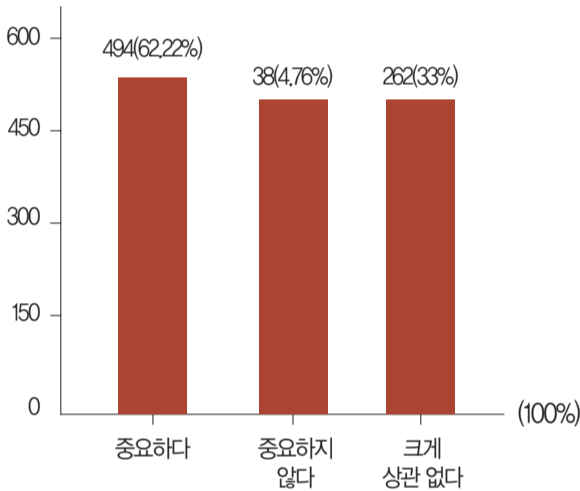
글을 쓸 때 맞춤법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총 796명)



상대방과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나눌 때 맞춤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794명)



용하지 않는 세대들은 알 수가 없는데, 이 말들을 모르면 ‘구식’의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쉽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세대간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한편 한글을 사용하는 인구는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세계적인 언어정보 제공사이트 ‘에스놀로그(Ethnologue)’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글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 순위 13위로 72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높아지는 한글의 위상에 비해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들 스스로 바른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언어도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변모한다.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언어에 대해 개방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용하는 이들 사이의 소통이 힘들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 ◆ 바른 우리말 사용,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사실 한글을 바르게 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바르게 쓰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다면 어렵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헛갈리는 맞춤법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른 한글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국어사전이 있다. 책으로 된 국어사전도 있지만 어플리케이션도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 뜻 또한 자세하게 나와 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는 맞춤법 검사기다. 맞춤법 검사를 원하는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맞춤법은 물론 띄어쓰기까지 고쳐준다. SNS를 통한 해결방법도 존재한다. 오민영(공과·컴퓨터공학 12) 양은 “국립국어원 트위터(@urimal365)를 통해 모

르는 맞춤법을 질문하면 바로 답장이 와서 해결할 수 있다”며 “다른 헛갈리는 맞춤법에 관련한 내용들이 자주 올라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본지 설문조사 결과 맞춤법이 헛갈릴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799명 중 44.81%에 달하는 358명이 국어사전을, 156명(19.52%)이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 ◆ 왜 중요할까?

그렇다면 한글의 바른 사용은 왜 중요하지 김현지 한국어교육과 교수에게 들어봤다. 김현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통 방식은 음성 언어를 통한 빠른 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만 이는 글이 아닌 말에 가깝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소통 방식이 글보다 말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자 언어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 음성 언어를 사용하다가 오해나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문자를 통한 언어 생활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메신저 등 개인의 통신 수단 발달은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언어 생활이 대학생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김 교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언어생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식을 발전시키고 배우는 사람들로써 맞춤법 파괴에 동참하기보다는 맞춤법을 바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맞춤법은 한국어로 문자 생활을 계속하는 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일종의 규약 혹은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규칙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인만큼, 문자 생활에 있어서의 약속도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차원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춤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인 우리들이 맞춤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한국어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며, 맞춤법에 대한 무지나 무시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무질서한 언어생활을 초래하는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맞춤법을 지키고, 바른 언어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어떤 글을 쓸 때 맞춤법이 가장 신경을 쓰냐는 질문에 796명 중 48.87%인 389명이 레포트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라고 답했고 모든 글을 쓸 때 신경을 쓴다는 학생이 377명(47.36%)으로 뒤를 이었다. 모든 글을 쓸 때 맞춤법에 신경을 쓴다는 학생이 많은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모든 글에 더 정확한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들의 언어 생활도 금방 더욱 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우리학교의 경우 특히 ‘글쓰기’를 기초 교양 과목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는 맞춤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에 맞게 언어생활을 하겠다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문제이니 대학생들이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언어와 발음이 중국 것과는 달라서 글자를 가지고는 서로 통하지 않는 까닭에, 공부하지 못한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는데, 사람마다 쉽게 익혀 일상생활에 편하게 쓰도록 하려는 것 뿐이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 〈외대인이 겪은 상대방의 충격적인 맞춤법〉

- |                              |                               |
|------------------------------|-------------------------------|
| “월래 그래 구지 그럴 필요 없지”          | “너랑 예기하려고”                    |
| “감기 빨리 낫아”                   | “너 입문계 고등학교 나왔어?”             |
| “너 정말 어의없다”                  | “나한테 일해라절해라 하지마”              |
| “애기 좀 해바 말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아니?” | “도통 이해가 않된다”“제가 이 분야에는 무뇌한이라” |
| “너 요즘 연애하니?”                 |                               |

### 〈헛갈리기 쉬운 맞춤법〉

- 되 / 돼  
▷ ‘되’는 ‘하’로, ‘돼’는 ‘해’로 바꿔본다  
ex) 그러면 안 되(X) - 그러면 안 하  
그러면 안 돼(O) - 그러면 안 해
- 이따가 / 있다가  
▷ ‘이따가’는 시간적 의미, ‘있다가’는 공간적 의미  
ex) 이따가 영화관에서 만나자  
난 카페에서 있다가 갈게
- 대로 / 데로  
▷ ‘대로’는 하는 즉시, ‘데로’는 공간적 의미  
ex) 수업 끝나는 대로 연락해  
높은 데로 가면 경치가 좋다
- 결맞는 (X) 결맞은 (O)
- 단출하게 (X) 단출하게 (O)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이진형 기자

### 기자 좀 봐주라



벌써 두 번의 신문을 내고 이번이 세 번째다. 사실 학부사 일을 하면서 얻는 것도 정말 많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다. 이번 기회에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해보려고 한다. 분명 기자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문제들이고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기는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정기자 때가 아니면 또 언제 어리광을 피워보겠는가.

가장 속이 타고 힘든 상황은 배려가 부족한 취재원과 취재처를 만났을 때다. 대부분은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며 협조적이시다. 그러나 정말 소수의 경우는 하지만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고 인터뷰 요청을 해도 단칼에 거절하시는 분도 있다. 이런 취재원은 대개 학생 신분인 경우가 많아 '공식적인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부끄러워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심리적인 압박은 상당히 높고 수명이 줄어드는 기분이 든다.

한 번은 인물면 주인공과 인터뷰 일정 조정을 하는데 문자가 여러 번 단절됐고 그래서 날짜 잡는데만 2~3일이 걸렸다. 문자가 계속 단절돼서 직접 연락을 드려 장소를 정하려고 했으나 다시 문자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바쁘신 분이니 이해를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 불안해졌다. 약속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리다 인터뷰를 못 해 인물면이 백지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문자는 약속 시간 몇 시간 전에 왔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기뻐다. 문자 오기 전까지는 섬섬한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그런 감정들은 말끔히 사라졌다. 아마 다른 동기 기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 감동하고 고마워한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기자들을 대할 때 조금만 더 협조적으로 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학과 생활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현재 학부사 인원이 적다보니 담당 취재처도 많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러다보니 친구들이 아쉬워서 한소리 하는데 그러면 필자 또한 아쉽다. 필자도 한 때는 학교 가는 5일 중 3일이 외박이었던 화려한 경력 이 있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너무 집돌이로 오해하니 섭섭하다. 그리고 가끔 학과 행사와 수업도 불가피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힘없는 일학년인 나로서는 높은 신분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럴 때면 죄책감마저 든다. 개인적으로도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과 행사와 수업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필자의 심정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오늘도 취재원을 만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누며 나를 무거운 마음의 짐을 웃음 뒤로 숨긴다. 그리고 마감날에는 밤새 기사를 쓰고 수정하여 반쯤 정신 나간 상태에서 조판소로 향한다. 외대학보, 그거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자들은 고생하며 최선을 다해 만든다. 그러니 열심히 활동하는 기자들도, 그 노력의 산물인 외대학보도 한번 봐주라.

어깨너머 듣는 교양

이상혁(미네르바 교양대학 · 문학과 정신분석 강)

### 정신분석과의 만남을 권하며

정신분석은 무의식에 관한 학문이며 창시자 프로이트는 의사였다. 그는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며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는 의식과 무의식을 수면 위와 수면 밑의 빙산으로 비유한 바 있다. 즉 의식은 빙산의 일부에 불과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이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900년에 출간된 『꿈의 해석』에서 무의식을 이론화해 20세기를 뒤흔들 새로운 학문의 문을 열었다. 정신분석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했기에 20세기 지성계에 끼친 영향은 심대했으며 현재도 여전하다.

꿈은 누구에게나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의 왕도”라고 말했다. 자신이 어떤 꿈을 꾸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수면 중 무의식적 욕망이 활성화되고, 그 욕망이 위장 작업을 거쳐 표상되는 것이 꿈이다. 억압된 무의식적 욕망은 금지와 억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에 그대로 의식화될 수 없다. 그래서 위장 작업이 필요하다.

금지과 억압은 그 유명한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 처음으로 이뤄진다. 3~5세 아

이가 겪게 되는 이 콤플렉스는 아이가 사회 질서를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계기다. 이 시기에 아이는 같은 성의 부모를 미워하고 다른 성의 부모에 애착을 갖게 된다. 그러다 미워하던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러한 욕망을 억압하게 되는 동시에 사회의 도덕체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럼으로써 아이도 사회화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사회질서는 이러한 사회화를 통해 지속된다.

정신분석은 이렇게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정신분석이 사회과학에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억압된 무의식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 사회화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도 밝혔다. 의식이 허용하지 않는 무의식적 욕망은 삶을 압박한다. 억압이 과도하면 신경증에 걸리기도 할 만큼 무의식적 욕망의 억압은 우리를 불행에 빠뜨린다. 정신분석은 무의식적 욕망을 인식함으로써 이 불행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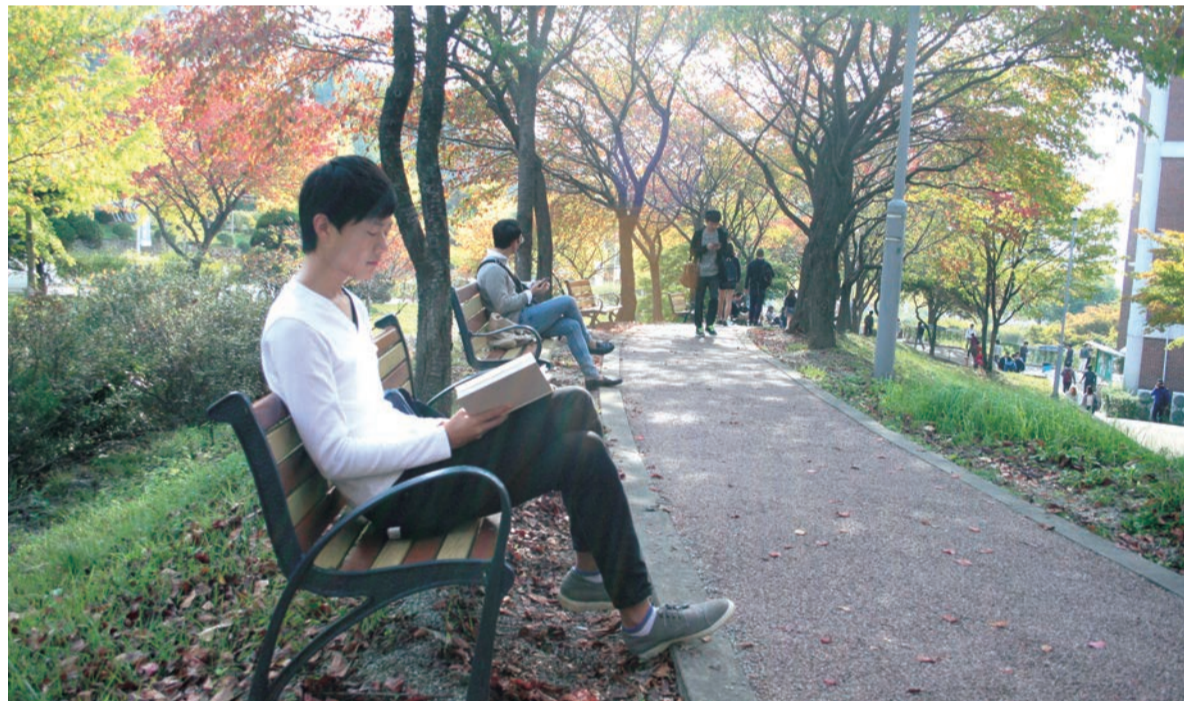
프로이트에 따르면 문학과 예술은 무의식적 욕망을 사회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드러낸다. 사회가 신경증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욕망

의 통풍구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문학과 예술은 낮 꿈(몽상)의 산물이다. 꿈에서 무의식적 욕망이 위장돼 드러나듯 이들 역시 작가의 무의식적 욕망을 미학적 형식을 통해 드러낸다. 문학과 예술을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무의식적 욕망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정신분석은 문학·예술에서 창작과 수용 문제의 해명에 또 다른 길을 열었다.

정신분석이 등장한 이후 수많은 비판이 가해졌다. 특히 성적 욕망을 지나치게 중요시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누구나 삶을 살아가며 성에 대한 내밀한 경험이 정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 경험의 중요성을 학문으로 삼아 사회의 수면 위로 드러냈고 이것이 사회질서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우리 삶의 뿌리까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든 수용하든 정신분석과 대면해야 하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정신분석과의 만남을 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시 정지

### 독서의 계절 가을, 책 한 권의 여유는 어떠신가요?



▲맑고 청명한 가을날,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벤치에 앉아 책을 읽어보세요.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어두고, 귀에서 이어폰을 빼고 독서를 하며 마음의 여유를 만끽하세요. 독서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진형 기자 88matteo@hufs.ac.kr

지나호를 말하다

김재민(교육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4)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 외대학보, 그들만의 리그인가

975호에 대한 독자위원들의 총평은 아쉬운 목소리가 컸다. 우선 기사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1면의 '총학생회 자치회비' 기사, 3면의 '통학버스 이용 안내' 관련 기사, 4면의 '터키 항공' 기사는 기사가 줄줄로 쓰여있어 한눈에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 표나 그래프로 정리했다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시의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3면의 '세계민속문화축전' 기사, 10면의 '일시정지'에 실린 사진은 모두 발행일 기준으로 이미 끝난 행사였다. 앞으로는 이미 끝난 행사 대신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나 프로그램을 미리 소개했으면 한다.

기사의 내용이나 구성면에서도 다소 미흡했다. 2면의 '버스 운전기사 해고'는 기획 기사에 맞지 않는 표제인 것과 버스 회사의 입장만 소개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4면의 '글로벌배움터 출입제한' 기사에서도 왜 글로벌배움터 학생들이 출입 제한에 대해 왜 문제제기를 삼는 건지 객관적인 조사와 전달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8면의 '언(言)빌리버블'에서는 '의무복무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 중 여성만 군대에 가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했는데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어 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의

심하게 했다. 정확한 근거와 논리적 진술이 있었다라면 좋은 주제에 맞는 재미있는 기사가 됐을 것이다.

한편 글로벌배움터 기사가 상당수를 차지했기에 서울배움터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3면 '가을 대동제' 기사에 서울배움터의 향후 축제 일정이나 간단한 소개도 넣었다더라면 유용한 정보가 됐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 관련 기사는 기획 의도는 좋았으나 1면 사진, 6~7면 기획, 11면의 만평에까지 이어져 지면을 많이 할애하는데 비해 호소력이 크지 않았다. 지면 할애와 기획 주제에 대해서도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사만큼 사진보도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어두워 잘 보이지 않거나 지면에 맞지 않는 사진도 있어 안타까웠다.

부디 974호에서 보여주었던 좋은 기획과 기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좋은 연극도 보는 관객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 독자 없는 외대학보 또한 의미가 없지 않은가.

지나호를 말하다

김병용(통번역 · 이탈리아어 10)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 학보의 발전을 응원하며

이번학기의 두 번째 발행호인 975호는 전반적으로 교내 소식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많았고 이를 통해 새 소식을 접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지나호에 이어 지속적으로 눈에 띄었다.

1면에서는 서울배움터의 자치회비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기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학우들이 알지 못했던 자치회비의 세부 분배 비율과 지급 과정을 알게 된 점은 좋았으나 이와 동시에 글로벌배움터에서는 문제가 없는 지를 함께 다루었다면 더 유익했을 것이다.

2면에서는 글로벌배움터의 버스 운전기사 해고에 관한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종종 있는 근로문제와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다. 그러나 왜 업체와 기사의 입장이 다른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3-4면에서는 여러 교내 소식이 실렸는데, 단순히 사실만을 보도하기 보다는 그 안에 숨어있는 이슈를 한번 더 언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통학버스에 관한 기사에서는 노선 신설로 인해 기존 노선의 통폐합으로 인한 불편을, 글로벌배움터 건물 출입시간 제한에 관한 기사에서는

제한이란 명목을 통해 추구하는 다른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족이 아쉬웠다.

6~7면에서는 양 배움터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특집 기사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우리 학교의 장애인 배려 정책이 시설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으나 사진의 배치 및 부제에서 나타나듯 서울배움터는 양호하고 글로벌배움터는 개선만 해야 할 것으로 보도된 것은 자칫 처음 보는 독자들은 혼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글로벌배움터의 경우 백년관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8면에서는 경력개발센터 및 취업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루었는데, 내용면에서는 우리학교의 취업률 등 학우들이 관심이 많을 내용이었으나 내용 자체가 인문계 학우들 위주로 구성되어 아쉬웠다. 본 기사 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이공계에 대한 내용이 함께 병행된다면 더욱 균형있는 학보가 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학보의 기사 표제가 조금 더 참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순히 내용을 압축한 듯한 표제보다는 간결하고 재밌는 표제가 독자들의 시선을 끌고 기억에 오래 남을 기사로 인식되리라 생각한다.



국·부장 고정칼럼

## 우리의 공중도덕 의식은 어디로

▲지난 달 열린 글로벌배움터 가을대동제 둘째 날이었다. 신나는 축제날이었지만 잿빛 하늘에서는 비만 내렸고 이른 아침의 학교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다. 수업에 가기위해 학관을 지나 다 비옷을 입고 쓰레기를 줍는 학교 환경미화원들이 눈에 띄었다. 주변에는 전날 주점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물에 젖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청소가 환경미화원의 일이라는 하나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솟았다. 분명 학교는 모든 학생을 위한 공공의 자산이지 주점을 즐긴 학생들만의 장소는 아니다. 마음 한 편이 계속 불편했던 것은 주점을 즐긴 학생들의 기본적인 도덕의식 결여 때문이었을 것이다.

▲얼마 전 열린 여의도 불꽃축제 역시 청소 문제로 논란이 됐다. 가을밤 불꽃은 한껏 즐겼지만 공중도덕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뉴스보도, sns 사진 등에서도 알 수 있었듯 이날 엄청난 인파가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몰렸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그 수가 약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몰렸다 해도 기초질서마저 무시한 시민의식은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도로와 한강공원 곳곳에는 음식쓰레기와 일회용품이 나뒹굴었다. 서울시에서 역시 많은 인파를 예상해 청소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대형 쓰레기통을 곳곳에 설치했다. 또 불꽃축제 주최 측 역시 '클린캠페인'을 진행하며 행사장 청소를 주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속수무책이었다.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투기는 계속됐다. 이에 '불꽃축제가 쓰레기 축제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편 불꽃축제와 비슷한 시기에 열린 홍콩 반중 시위대의 질서정연한 태도가 주목받고 있다. 시위현장은 수만 명의 인파가 머물다 떠났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깔끔했다. 홍콩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많은 언론들이

당시 시위 후 모습에 대해 '쓰레기는 모두 도로 한 쪽으로 치워져 있었으며 페트병과 일반 쓰레기 등은 모두 분리수거 돼 있었다'고 말했다.

▲시위 날 밤 홍콩에는 폭우가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시민들은 자신이 머문 자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수준 높은 공중도덕을 보여줬다. 이에 당시 시위자 중 한 명은 "이는 누군가의 일이 아닌 홍콩 사람 모두의 일이기 때문"이라 답했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 역시 공중도덕 의식이 높기로 유명하다. 4년 전 일본에 여행갔을 때 휴지 조각 하나 없는 거리를 보며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최근 필자가 봤던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아무리 굶은 날씨였다 하더라도 축제날 아침 주점 주변의 쓰레기들은 미화원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치워야 했다.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공중도덕'을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할 때다.

## 사설

### 외국인을 향한 배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났다. 육상 경기 시상식 이후 기자회견 중 금메달리스트가 '셀프' 통역을 한 것이다. 메달리스트들은 아랍 선수들이었는데 아랍어 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다. 해외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국제 망신이라고 입 모아 말하고 있다. 이번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45개국 중 아랍어를 쓰는 국가는 12개에 달했다. 하지만 준비위원회는 이 사건 전까지 아랍어 통역사를 한 명도 준비하지 않았다. 러시아어 통역사도 없었다. 준비위원회가 자금이 없었을까 아니면 통역사를 절대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까?

이것은 배려의 문제다. 엄청난 규모의 준비와 화려한 겉모습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타 국가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것이다. 우리 모두 작은 배려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미디어·책·생활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배려를 강조하는가. 하지만 배려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내다보고 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40만 명을 훌쩍 뛰어넘으며 외국인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들을 단지 신기한 외국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배려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가까운 예로 현재 학부와 대학원을 통틀어 우리학교의 외국인 재학생 수는 대략 900명 정도이다. 이들은 모두 우리에게 우리학교를 방문한 '손님'인 것이다. 필자는 때때로 복잡한 학교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학생들을 봤다. 이런 경우 우리의 배려 깊은 행동과 언행이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반 박자 빨라야 한다. 한국 문화의 특성 상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배려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상대방도 분명 당신에게 마음을 열 것이다. 배려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열쇠와 같기 때문이다.

### 학생 사회, 주인의식 가져야

이번달 7일 양 배움터에서 하반기 전체 학생 총회(이하 정총)가 치러졌다. 서울배움터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700여명의 학생들이 잔디광장을 찾았으나 정족수를 다 채우지 못해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상정됐던 안건들이 △제2도서관 △성적평가방식 변경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안 제정 등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 정총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다. 이 안건들이 우리학교 학생들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문제, 휴스라이프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혹은 온라인 상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불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학생사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성적평가방식 변경안에 관해서만 예를 들어봐도 그렇다.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학교가 성적평가방식을 갑자기 제시하자 학생들은 분노로 들끓었다. 당시 학생들은 학교가 왜 학생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성적평가지침을 바꾸냐며 불만을 표시했었다. 하지만 막상 이 방식이 한 학기 유예되고 나자, 어떤 성적평가방식을 원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인 정총은 무산되고 말았다.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물론 큰 문제다. 그러나 '내 문제'가 되고 나서야 이를 해결하고자 나서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총에서 단과대학 학생총회 결의안 연서명 관련 논의 중 발언대 위에 오른 김상혁(사회·미디어 12) 사회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 문제'가 되고 나서야 자신의 의사를 표명해서는 늦다. 누군가가 해결해주겠지 같은 안이한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것도 결국에는 문제를 키우는 일이다. 학교의 주인답게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해야 할 때이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껴너머 듣는 교양(7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임수진 010-4257-9732, 87curious@hufs.ac.kr

##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오종진

편집장 임수진

부장 최소영

제작 경보미디어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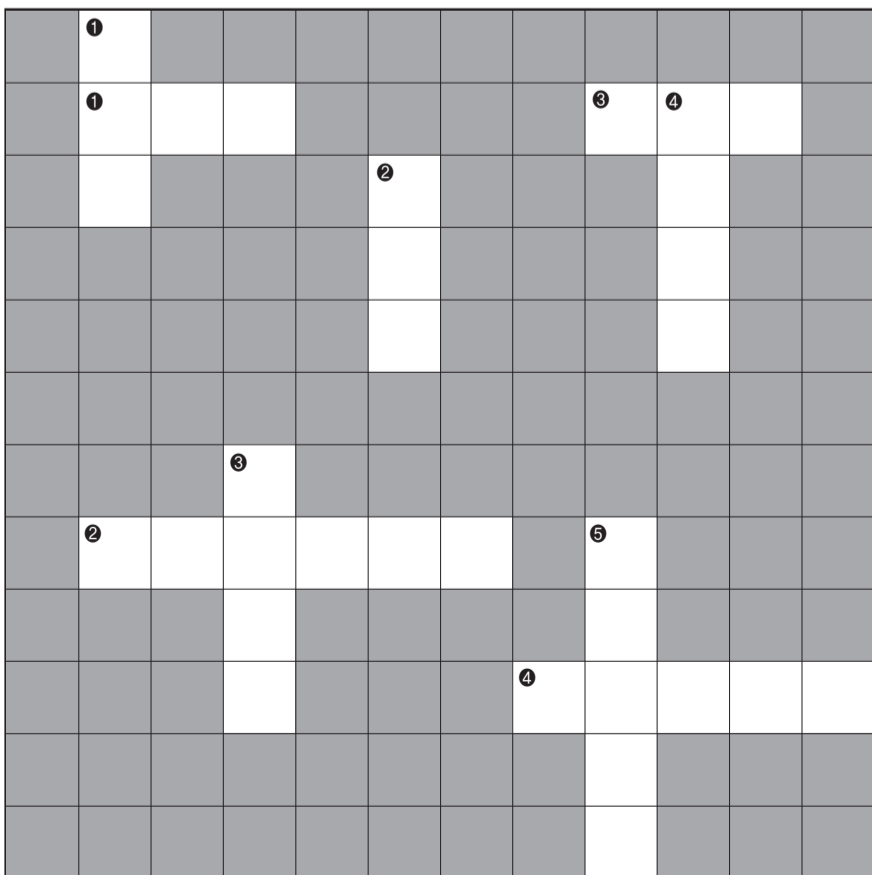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www.oedaehagbo.com

facebook /newhufspress

## 십자말풀이



### 가로

1.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우리학교 도서관에서는 다독상과 000을 시상했다. (2면 참조)
2. 000000은 커피감별사의 최고자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8면 참조)
3. '마주보다'라는 뜻의 프랑스어는? (8면 참조)
4. 세계적인 언어정보 제공사이트 000000에 따르면 한글은 언어 순위 13위다. (5면 참조)

### 세로

1. 답은 정해져있고 년 대담만 하면 돼의 줄임말은? (5면 참조)
2. 지난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우리나라 한글창제를 기리는 날은? (5면 참조)
3. 9월 11일부터 피구·발아구·축구·농구의 경기를 진행한 글로벌배움터 체육대회 이름은? (3면 참조)
4. 서울배움터 0000가 9월 29일 재조성 됐다. (2면 참조)
5. 이스라엘은 50일에 걸친 00000 가지(Gaza)지역 공세를 끝냈다.(4면 참조)

### ※꼼꼼히 푸셨나요?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계정 친구 추가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커피 안으로 뛰어든 우리나라 최초 큐 인스트럭터(Q-Instructor) 김길진(영어통번역 00)

길을 걷다보면 점점 늘어나는 커피 전문점들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최근 우리나라에서 커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그와 함께 커피에 대한 직업도 인기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안에서 커피 감별사의 최고 자리인 큐 인스트럭터(Q-Instructor)라는 직업은 생소하다. 이번에 만난 김길진 큐 인스트럭터 2012년 1월, 당당히 세계에서 23번째로 큐 인스트럭터가 돼 우리나라 커피 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큐 인스트럭터(Q-Instructor)?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 삼성역 주변에 위치한 \*뷔자뷔(Vis-à-Vis) 커피를 찾았다. 가게 안에는 일반 커피 전문점과 다른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 김길진 큐 인스트럭터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이었다.

## Q 큐 인스트럭터란 어떤 직업인가?

A 큐 인스트럭터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커피의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최고 권위자'이다.

큐 인스트럭터를 알기 위해선 큐 그레이더(Q-Grader)를 먼저 알아야 한다. 큐 그레이더가 되기 위해선 미국 스페셜티커피 협회(SCAA) 산하 기관 CQI(Coffee Quality Institute)에서 시행하는 22 과목의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 과목들에는 원두의 향미와 맛을 구별해내는 커피 테스트(Cupping Test)와 커피가 가진 신맛, 단맛, 짠맛의 강도와 종류를 구분해 내는 센서리스크일 테스트(Sensory Skills Test) 등이 있다. 이 시험들을 통과하고 나면 향·맛·질감 등 정해진 열 가지 기준에 따라 커피의 맛을 수치화해 등급을 나눌 수 있는 큐 그레이더의 자격이 주어진다.

큐 인스트럭터란 이러한 큐 그레이더들을 양성하는 보다 심도 있는 직업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커피를 그냥 '쓴 음료'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는 커피에 대해 등급을 나누고 평가하고 있었다.

## Q 커피 등급을 나누는 과정이 궁금하다.

A 큐 그레이더는 아라비카 원두의 등급을 매긴다. 등급을 나누는 것은 곧 원두를 커피로 내려 맛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맛보는 방식이 좀 독특하다.

큐 그레이더가 커피를 맛볼 때에는 커피를 '마신다'기보다 '흡입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취입'하는 소리와 함께 빠르게 흡입하는데 그 이유는 커피가 혀에 강하게 부딪치며 커피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느끼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흡입한 커피는 혀에 닿는 순간에 열 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큐 그레이더가 가진 커피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절대적인 미각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먹고 '아, 이건 전라도. 아, 이건 경상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라며 본인의 능력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 Q 커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최고의 커피는 어떤 커피라고 생각하나?

A 방금 말한 것처럼 커피에는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커피별로 특성도, 사람마다 느끼는 최고의 맛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품질의 커피를 꼽을 수는 있지만, 최고의 커피를 한 가지로 꼽을 수 없다.

그는 "처음 커피를 접할 때는 먼저 접한 하나의 커피만 가지고 맛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로 대표적인 커피를 마셔보고 자신에게 맞는 커피를 찾는 것이 커피의 또 다른 묘미"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커피를 가장 선호하는지 되물자 "저는 보이차를 제일 좋아합니다"라는 농담 섞인 말을 건넸다. 자신의 말이 또 다른 선입견을 불러오지 않게 하려는 것인 듯 보였다.

## ◆영어통번역학에서 큐 인스트럭터로

### Q 평소 커피를 좋아했나? 영어통번역학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커피의 길을 택했는지?

A 커피를 좋아하기보다 음료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 관심이 커피까지 이어졌고, 평소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든 일단 배워보자'라는 신조에 따라 공부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다.

그는 커피 전문가의 길에 들어서게 된 이유를 성격 탓이라고 이야기했다. 평소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려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그 습관에 따라 살다보니 바리스타, 큐 그레이더, 큐 인스트럭터까지 커피의 모든 분야를 정복하게 됐다고 전했다.

### Q 영어통번역학에 대한 미련은 없었나?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다.

A 사실 아직까지 미련은 있다. 하지만 커피가 적성이란 것을 알았고, 그 당시에는 아직 커피가 지금만큼 관심을 받고 있지 않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뀔 것이란 미래가 보여서 택할 수 있었다.

그는 "커피를 공부할 때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며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커피 전문가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공부하던 영어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한 삶의 기반"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영어로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현지로 가서 부딪칠 수 있었고 더 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주변에서 커피 전문가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영어 열심히 하세요"라 말해준다고 한다.

### Q 2007년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고 큐 인스트럭터라는 최고의 위치에 오기까지 5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당시 세계에

### 서 최연소로 큐 인스트럭터가 됐다고 들었다. 이렇게 빠르게 달려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A 계속 앞으로 나가려는 성격적 요소가 컸고, 빨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앞으로 삶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이에 덧붙여 그는 "미국에 나가 공부하며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다"며 힘들었던 기억을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만 해도 되는 일을 그는 꼭 두 번 세 번씩 했다고 전했다. 그래도 이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의 응원과 잔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힘들었을 당시 "여기서 지치면 안 돼"라는 지인들의 한 마디가 큰 위로가 됐다고 한다.

### Q 큐 인스트럭터로 일하며 가지고 있는 신조가 있나?

A '커피로 장난치지 말자'.

이 말을 하며 그는 메뉴판에 있는 커피 가격을 보여줬다. 그 가격은 여타 일반 커피 전문점에서 볼 수 있는 가격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커피 제조공정을 직접 관리하고 맛에 대해 항상 신경 쓰며 수준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점을 과시하며 비싼 가격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하나의 문화이지 나를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소개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신념에 맞게 커피의 가격을 책정하고 정직하게 소비자들에게 커피를 판매하는 것을 '장난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 노력을 조금 더 알아줬으면 할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에 그는 "일반인들엔 나도 일반인일 뿐이다. 다만 내가 내려준 커피를 마시고 '맛있네' 한 마디 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 ◆직접 뛰어들어라, 그리고 멈추지 마라

마지막으로 현재 진로에 대해 고민 중인 후배들에게 들려줄 조언을 구했다. 이에 그는 "좋아하는 일을 하나 찾아서 그 일과 관련된 나라로 직접 뛰어들어라"라고 충고했다. 우리학교의 장점은 많은 언어를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 점을 이용해 한 발 한 발 찾아 나가다보면 언젠간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배워 커피 산지에서 직접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며 지금도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요즘에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멈추지 말라"고 직언을 했다. 그도 이 자리에 오는 데에 힘든 일이 많았으며 "힘들면 힘들어하고, 화내고 나서 다시 가야한다"고 자신의 경험이 담긴 충고를 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 자리가 최고가 아니다"며 "커피 업계에서만 하더라도 다른 최고의 자리들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앞으로 접해보지 못한 분야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 큐 인스트럭터의 길을 오느라 잠시 접어뒀던 영어에 대해서도 "더 공부해서 또 하나의 무기로 만들고 싶다"며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전했다.

글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사진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뷔자뷔(Vis-à-Vis)란 '마주보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이다.



▲ 수입해온 커피 생두가 담긴 통과 커피 맛에 등급을 매기고 있는 김길진 큐 인스트럭터.